

신바시 연무장은 1923년부터 시작된 역사가 있는 극장으로, 신바시의 게이샤의 아즈마오도리(東をどり: 게이샤들이 노래와 춤으로 엮어내는 화려한 무대) 공연으로 정식 오픈했습니다. 이 극장의 목적은 게이샤의 전통 예능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건물이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지만, 1948년에 재건되었습니다. 1982년에는 극장 내부뿐만 아니라 조명과 음향 기술에도 초점을 맞춘 대규모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습니다. 무대는 가부키(歌舞伎: 음악과 무용의 요소를 포함하는 일본 전통극)의 전통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며, 무대와 같은 높이로 관객석을 똑바로 지나가는 통로인 ‘하나미치(花道)’가 있습니다. 관객석은 3개 층으로 되어 있으며, 1,424석 있습니다. 2층 난간에는 눈, 달, 꽃을 나타내는 설월화 좌문(座紋: 극장의 심볼로 이용되는 무늬)이 들어간 등불이 매달려 있습니다.

극장은 당초 게이샤의 전통 예능을 홍보하기 위한 장소로 건설되었지만, 곧 그 레퍼토리에 가부키, 셰익스피어의 연극, 뮤지컬, 그리고 최근에는 슈퍼 가부키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 예술이 추가되었습니다. 슈퍼 가부키는 전통 가부키에 특수 효과를 도입한 실험적 요소가 더해진 것으로 만화와 애니메이션에서 많은 영감을 얻은 시도입니다.

슈퍼 가부키 프로젝트 II로서 『월피스』는 이 극장에서 처음으로 공연되었습니다. 그 성공에 이어 새로운 가부키 『나루토』가 그 후 제작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혁신을 이루면서도 신바시 연무장은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1925년 공연 이후 아즈마오도리는 지금도 1년에 1회 공연이 진행됩니다. 휴식 시간에는 게이샤와 교류할 수 있으며, 공연자는 관객과 자유롭게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제작 기술과 무대에 가까운 좌석은 연극을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일본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기억에 남는 체험이 됩니다.

긴자는 맛있는 요리를 먹지 못할 걱정이 없는 곳이지만, 신바시 연무장에 있을 때는 배가 고파도 굳이 극장을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극장의 레스토랑은 현지의 전통 있는 고급 식당의 요리사가 감수하고 있습니다. 신바시 연무장은 국립 가부키자 극장에서 도보로 10분이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합니다.